

# 『当世書生氣質』에 나타난 수수동사에 관한 고찰

- ‘やる ·あげる ·さしあげる’와 ‘くれる ·くださる’를 중심으로

양 정 순  
(경희대학교)

## 1. 머리말

메이지 시기의 언어는 에도어에서 도쿄어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서구 외국어의 영향, 외국 문명의 유입, 사회제도의 전반적인 변화, 에도어의 틀을 벗어 나고자하는 언문일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의 언어 특징 중의 하나로 대우표현의 변화를 지적하는데, 이는 대인관계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본고에서는 대인관계에 의해 동사의 사용이 결정되는 수수동사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수수동사란 물건이나 사물 및 행위를 주고받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일본어 수수동사는 화자와 청자, 화제의 인물(‘주는 자’, ‘받는 자’)이라는 대인 관계를 바탕으로 ‘やる類’, ‘もらう類’, ‘くれる類’로 나누어 사용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大江三郎의 『日英語の比較研究-主觀性をめぐって-』<sup>2)</sup>에 따르면, 화자(‘주는 자’) 측에 속한 것이 청자(‘받는 자’)에게 이동되는 ‘やる’, ‘あげる’, ‘さしあげる’의 ‘やる’類, 청자(‘받는 자’)측에 속한 것이 자

1) 松村明(1957) 『江戸語東京語の研究』東京堂 pp.86-103

2) 大江三郎(1975) 『日英語の比較研究-主觀性をめぐって-』南雲堂 pp.29-33

신(‘받는 자’)에게 이동되는 ‘くれる’ ‘くださる’의 ‘くれる’類, 화자(‘받는 자’) 측에 속하지 않은 것을 청자(‘주는 자’)로부터 받는 ‘もらう’ ‘いただく’의 ‘もらう’類 로 분류 설명하고 있다.

수수동사가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물의 이동을 나타내지만, ‘テ’가 접속되어 사용될 때는 은혜, 이익이라고 하는 플러스적인 측면과, 불이익이나 피해 등의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작용된다. 그러나 鈴木重幸는 ‘テ’가 접속된 수수동사는 수수표현 이외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지적했다.

한편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신분이나 직업에 규정된 고정적인 표현이 아닌 장면에 따라 바뀌는 표현이 등장<sup>3)</sup>하면서 대우표현의 변화이외에 화자의 성별에 따른 표현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수수동사의 사용법이 현대 일본어와 다를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에도어의 잔재가 있고 언문일치로의 교량적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sup>4)</sup> 坪内逍遙의 『当世書生氣質』에서 보이는 ‘やる’ ‘あげる’ ‘さしあげる’와 ‘くれる’ ‘くださる’에 대해 상하관계에 따른 표현, 화자의 성별의 차이에 따른 특징, ‘テ’가 접속된 경우의 표현 및 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수수동사의 대우표현

山崎久之의 『国語待遇表現体系の研究』<sup>5)</sup>에 의하면, 에도어로서의 수수동사에 대해 수평어로서 ‘やる’ ‘くれる’ ‘もらう’, 상하관계에 따른 수직어로서 ‘いただく’ ‘くださる’ ‘あげる’ ‘さしあげる’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대 일본어에서는 그 양상이 다르게 제시되었다. 奥津敬一郎<sup>6)</sup>는 7개

3) 山口明穂(1997) 『日本語の歴史』東京大学出版者 pp.175-212

4) 増井典夫(1998) 「近代語資料における校訂の問題と資料性をめぐってー坪内逍遙『当世書生氣質』の場合」淑徳国文 pp.22-49

5) 山崎久之 (1963) 『国語待遇表現体系の研究』近世編 武蔵野書院 pp.374-393

의 수수동사를 화자, 청자, ‘주는 자’, ‘받는 자’의 상하관계에 따라 ‘やる類’의 비경어는 ‘やる’, 중간단계는 ‘あげる’, 경어는 ‘さしあげる’로, ‘もらう類’의 비경어는 ‘もらう’, 경어는 ‘いただく’로, ‘くれる類’의 비경어는 ‘くれる’, 경어는 ‘くださる’로 제시하였다. 辻村敏樹<sup>7)</sup>는 ‘やる類’의 대우표현에 있어서 보통어에는 ‘やる’, 상위표현에는 ‘おやりになる’ ‘おあげになる’, 하위표현에는 ‘さしあげる’를 제시하였고, ‘くれる類’의 대우표현에 있어서 상위표현으로 ‘くださる’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あげる’는 경어도가 낮아져 겸양어에서 미화어로서 화자의 품위를 나타내는 말로써 다루어진다고 언급하였다.<sup>8)</sup> 또한 ‘やる’는 동물, 식물,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사용된다고 하는데, 『当世書生氣質』에서 보인 수수동사의 대우표현은 어떤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 1) やる · あげる · さしあげる

다음의 예는 『当世書生氣質』에서 나타난 ‘やる’동사의 일부를 이용하여,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기준으로 사회적 신분, 직업, 연령이 대등한 관계일 경우는 ‘=’, 사회적 신분, 직업, 연령이 손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로 표시하여 제시한 것이다.

- 1) ヤイ宮賀待よれ。今起て教へてやるワイ。そないに怒らんでもえいもんぢや。

(p.328 주는자>받는자 주는자:桐山勉六 받는자:宮賀透)

- 2) 成程手紙は此間もよこしたが、返辞をやつた事は曾てなしサ。

(p.342 주는자>받는자 주는자:小町田榮爾 받는자:田の次)

- 3) 其顔鳥といふ女は、全次の種だには違ひないが、いくらか三

6) 奥津敬一郎(1979)「日本語の授受動詞構文—英語・朝鮮語と比較して—」『人文学報』132

東京都立大学 pp.1-27

7) 辻村敏樹(1992)『敬語論考』明治書院 pp.229-243

8) 辻村敏樹(1992)『敬語論考』明治書院 p77

芳には関係があるし、殊にお常さんとは叔母姪の中だし、まさか其儘で追放す訳にもゆかず、三芳からは手切金として若干の散財。園田も幾分か遣つたとの事。イヤ兎に角に小説めいた話さ。ハヽヽヽヽ。

(p.429 주는자>받는자 주는자:園田 받는자:顔鳥)

- 4) オット承知だ。それぢやア、二十葉から、こうつと、……三十葉まで、君にやらう。汗牛堂へは明後日ゆくからなるべくせいだして訳したまへ。十枚で二円五十銭にやアなるから。

(p.346 주는자=받는자 주는자:山村 받는자:継原青造)

- 5) 封じ袋もなしで、暴露になつて居るが、一体出すのか、來たのか、見てやらう。

(p.246 주는자=받는자 주는자:守山友芳 받는자:倉瀬連作)

- 6) オヤマア、可哀さうに。定めしお腹がすいたらうネエ。あの檀那、つれていつておやりなさいナ。

(p.257 주는자<받는자 주는자:小町田浩爾 받는자:女兒(田の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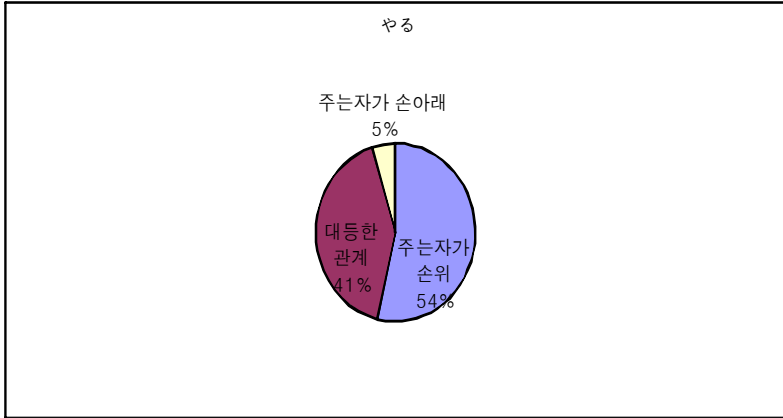
- 7) 此客はネ、随分七月のお槍の癖に、お前に十八棒跳だヨ。ト一々ともいかないが、まんざら北国の雷さまでもなささうだ。半助でも取っておやりヨ。

(p.240 주는자<받는자 주는자:お定 받는자:お豊)

『当世書生氣質』에서의 ‘やる’은 대부분 예(1)(2)(3)와 같이 대부분 ‘주는 자>받는 자’이거나 예(4)(5)과 같이 ‘주는 자=받는 자’의 경우가 많았다. ‘주는 자<받는 자’인 경우는 예(6)(7)과 같이 ‘おやりなさる’형과 ‘おやる’의 형을 이용하여 표현했다.

『当世書生氣質』에서 보인 ‘やる’의 대우표현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やる’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순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4%,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대등한 관계에서는 41%,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손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 사용되었다. 현대 일본에서의 ‘やる’는 주로 ‘받는 자’가 손아래에 해당되지만<sup>9)</sup>, 『当世書生氣質』에서는 대등한 관계에서도 다수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예는 『当世書生氣質』에서 나타난 ‘あげる’동사의 일부를 이용하여,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기준으로 사회적 신분, 직업, 연령이 대등한 관계일 경우는 ‘=’, 사회적 신분, 직업, 연령이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로 표시하여 제시한 것이다.

- 8) サア、紙入をあげますから、マア兎も角も、エ、お出なさいといふに。

(p.375 주는자<받는자 주는자:お秀 받는자:住吉潔)

- 9) わたしはあの時の事を思ふと、まことにくやくしてなりませんヨ。てがみでさう申して上た通り、あの辯吉の意地わるめ

9) 上野田鶴子(1978)「授受動詞と敬語」『日本語教育』35號

が、あれからわたしをかたきにして、陰でいろ / \ とわたしの事をば、さんざんわるくばかりひますので、

(p.352 주는자<받는자 주는자:田の次 받는자:小町田榮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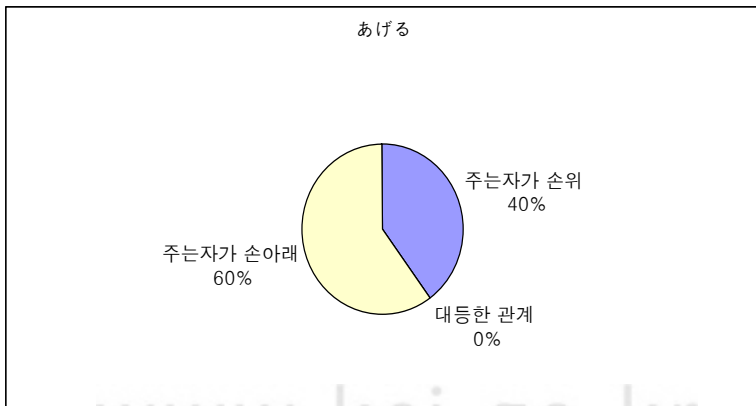
- 10) 斯して妾が、お前に逢つたのも何かの因縁の有事で、他生の縁とやらに相違ないから、妾が出来るだけ力になつてあげるから、ヨ、ヨ、心配おしでない。あれサ、泣くには及ばないワネ。若し神田の叔父さんとやらが、居ないやうなら、檀那さまに願ひ申して、妾の手元に置いて、世話をして上るから、ヨ、ヨ、安心しておいでヨ。

(p.260 주는자>받는자 주는자:お常 받는자:お芳)

『当世書生氣質』에서 ‘あげる’의 사용 예는 적었지만, 그 가운데 예(8)(9)와 같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손위에 해당되는 경우와 예(10)와 같이 정중한 표현으로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손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10)은 손위의 여성이 ‘あげる’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품위를 보인 예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메이지 시대의 언어생활의 특징 중의 하나인 대우 표현의 변천의 예라 할 수 있다.

『当世書生氣質』에서 보인 ‘あげる’의 대우표현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あげる’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손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손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0%사용된 것처럼, 존경의 의미로 사용된 것과 동시에 정중한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일본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さしあげる’는 『当世書生氣質』에서 다음과 같은 1개의 예만 있었다.

- 11) ナアル。……時にはお話が理に落ちて、どうも盃が流行ませんナ。サア / \、小町田さん。一つさしあげませう。オヤ如何なッた、大層顔色が悪いではないか。

(p.302 주는자>받는자 주는자:守山友定 받는자:小町田繁爾)

『当世書生氣質』에서의 ‘さしあげる’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손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메이지 시대의 언어 특징 중인 하나인 대우표현의 변화, 즉 정중한 표현과 미화어의 사용, 장면에 따른 대우표현이라고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예(11)는 ‘받는 자’가 손아래이지만 청자에 대한 배려를 나타낸 공손한 표현으로써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当世書生氣質』에서 보이는 ‘やる類’의 대우표현을 살펴보면, 대등한 관계와 ‘받는 자’가 ‘주는 자’보다 손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로 ‘やる’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받는 자’가 ‘주는 자’ 및 화자 보다 손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あげる’가 사용되었으며, 손아래의 ‘받는 자’에게 사용된 예를 보면 정중한 표현으로써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くれる’ ‘くださる’의 대우표현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 2) くれる · くださる

다음의 예는 『当世書生氣質』에서 나타난 ‘くれる’동사의 일부를 이용하여,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기준으로 사회적 신분, 직업, 연령이 대등한

관계일 경우는 ‘=’, 사회적 신분, 직업, 연령이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로 표시하여 제시한 것이다.

- 12) 阿兄は急がしいって教へんから、來たんだイ。教へて呉れヨ。いやかア。いゝヤイ、おせえて貰はんでも外へいつて聴てく라이。

(p.327 주는자>받는자 주는자:宮賀匡 받는자:宮賀透)

- 13) オイ、其方にある、餡の這入つちよるのを呉れイ。幾何ちや。

(p.238 주는자=받는자 주는자:宮賀匡 받는자:須河悌三郎)

- 14) 今日の会費は、一円二十銭といふのだが、外に車代もいる訳だから、一円五十銭か、二円あらば、貸てくれたまへ。此月末にはきつと返すから。

(p.244 주는자=받는자 주는자:守山友芳 받는자:倉瀬連作)

- 15) 淨瑠璃風に話さうと思つたが、即席には文ができない。やつぱり真地目で話すとしよう。時にもう一盃くれたまへ。おつとゝ、幸甚。エヘン/ \。.....僕もネ、人傳手の又聞だから、委しい原因も結果もしらんが、其大略は、左の如しさ。

(p.320 주는자=받는자 주는자:須河悌三郎 받는자:継原青造)

- 16) 早いどころぢやないワ。大変ぢや。早う下駄を呉れイ。

(p.238 주는자<받는자 주는자:店番 받는자:須河悌三郎)

- 17) オイ、時計を呉れんか。お茶代はこゝへ置くぞ。

(p.241 주는자<받는자 주는자:お豊 받는자:須河悌三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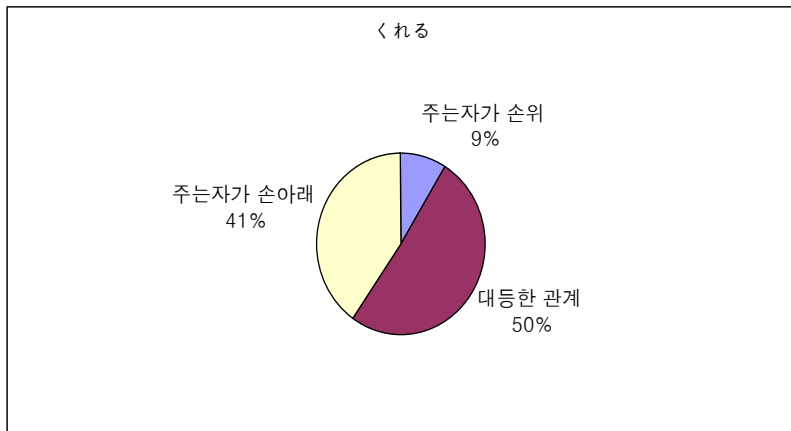
- 18) さウ。ア、苦しかった。早くお茶でもおくれなネエ。

(p.408 주는자<받는자 주는자:田の次 받는자:小年姐)

『当世書生氣質』에서 ‘くれる’은 예(13)(14)(15)와 같이 ‘주는 자=받는 자’이거나, 예 (16)(17)(18)와 같이 ‘주는 자<받는 자’의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예(12)와 같이 가족과 다름없는 친숙한 관계의 장면에서는 ‘주는 자’가 순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くれる’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当世書生氣質』에서 보인 ‘くれる’의 대우표현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当世書生氣質』에서의 ‘くれる’은 대등한 관계에서의 사용이 50%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는 주는 자가 손아래인 경우가 41%를 차지하였다. ‘주는 자’가 손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9%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예는 『当世書生氣質』에서 나타난 ‘くださる’동사의 일부를 이용하여,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기준으로 사회적 신분, 직업, 연령이 대등한 관계일 경우는 ‘=’, 사회적 신분, 직업, 연령이 손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로 표시하여 제시한 것이다.

- 19) よもや御病氣ちやアあるまいのに `端書的一本も下さらないとは `あんまり水くさいとたつた一個で `じれてばっかし居ましたうち `段々からだがわるくなつて `座敷へ出る訳にもいかないから `多田さんのお世話になつて `薬をた

べたのも一月あたり`

(p.353 주는자>받는자 주는자:小町田繁爾 받는자:田の次)

20) 否なら否と`……もし見棄てさへくださらなけりやア`六年でも`まだ十年でも`わたしが心はかほりません`。

(p.354 주는자>받는자 주는자:小町田繁爾 받는자:田の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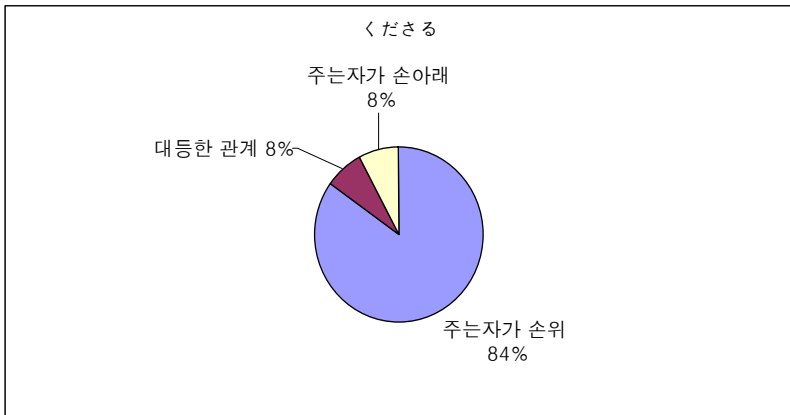
21) さういふ訳では`強て申すは宜しくない`……それぢやア女中`車は結局二台でよろしい`。一台は二人乗りをいひつけてください。`

(p.302 주는자<받는자 주는자:女中 받는자:守山友定)

『当世書生氣質』에서 ‘くださる’의 사용이 적었지만, 예(19)(20)와 같이 ‘주는 자>받는 자’의 경우에 다수 사용되었다. 그리고 공손한 부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는 예(21)와 같이 ‘주는 자<받는 자’의 경우에서도 사용되었다.

『当世書生氣質』에서 보인 ‘くださる’의 대우표현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当世書生氣質』에서의 ‘くださる’는 주는

자가 손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84%를 차지했으며 주는 자가 손아래인 경우나 대등한 관계에서는 각각 8%에 불과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반적으로 『当世書生氣質』에서 보인 ‘くれる類’동사의 대우표현에 대해 정리해보면, 주는 자가 손아래에 해당 될 경우와 대등한 관계에서는 ‘くれる’가 사용되었고, 주는 자가 손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くださる’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화자의 성별 차이에 따른 특징을 서술하고자 한다.

### 3. 화자의 성별 차이에 따른 특징

山崎久之는 수수표현에 대해 남성어의 특징으로 ‘くださりませ’ ‘くださります’ ‘くれんか’ ‘くれい’등을 제시하고, 여성어의 특징으로는 ‘おくれ’ ‘くだされ’등을 제시하였다. 또, 森田良行<sup>10)</sup>는 화자의 성별의 차이에 강조를 두어, 이에 두드러진 표현으로서 ‘授受表現’ ‘お+동사의 명령형’ ‘たまえ’등으로 분류하여 여성어와 남성어의 차이를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小松寿雄<sup>11)</sup>는 수수동사의 표현 형태에 있어서 성별차이에 따른 특징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当世書生氣質』에서는 화자와 청자와의 성별차이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대화문만을 이용해서 수수표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1) やる · あげる · さしあげる

다음의 예는 『当世書生氣質』에서의 대화문에 나타난 ‘やる’동사의 일부를 화자와 청자의 성별차이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10) 森田良行(1974)「荷風・潤一郎・春夫の敬語」『明治大正時代の敬語』明治書院 p.208

11) 小松寿雄(1974)「『当世書生氣質』の江戸語的特色」『論集日本語研究現代語』有精堂

22) オット承知だ。それぢやア、二十葉から、こうつと、……三十葉まで、君にやらう。汗牛堂へは明後日ゆくからなるべくせいでして訳したまへ。十枚で二円五十銭にやアなるから。

남성화자→남성청자 (p.346 화자:山村 청자:継原青造)

23) なんだ。衝当たったから理屈をいつたと。かまふものか、書生奴が何をいやアがる。僕がいつて掛合つてやらう。

남성화자→여성청자(p.229 화자:吉住潔 청자:年)

24) ネエ檀那。かはいさうな子ぢやアありませんか。お宅までつれていつておやんなさいナ。恰と明日、わたくしが下谷へ参りますから、神田まで送っていつてやりますから。坊や、おまへは、お昼のおまんまを食べたのかエ。

여성화자→남성청자(p.257 화자:お常 청자:小町田浩爾)

25) 思ひきり、いぢめておやりヨ。ほんたうに此節の書生さんは、おとなしい顔をして居て、ちっとも油断がなりやアしないヨ。

여성화자→여성청자( p.241 화자:お定 청자:お豊)

예(22)(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화자는 ‘やる’ 특히 ‘やらう’와 같이 강한 표현이 많았던 반면에, 여성화자는 예(24)(25)와 같이 ‘お’를 이용하여 ‘おやんなさい’ ‘おやりヨ’ 등과 같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표현으로 사용했다.

『当世書生氣質』에서 대화문에서 화자의 성별에 따라 ‘やる’를 분류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1]

やる	남→남	남→여	여→남	여→여
『当世書生氣質』	やる系 23개	やる系 7개	やる系 7개 おやる系 1개 おやりなさる系 2개	おやる系 1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やる’는 화자가 남성인 경우에 30개의 사용예가 보였다. 특히 남성화자와 남성청자사이에서는 23개의 ‘やる’가 사용되었다. 화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사용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やる’이외에도 ‘お’가 접속된 ‘おやる’형, ‘おやりなさる’형의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는『当世書生氣質』에서의 대화문에 나타난 ‘あげる’동사의 일부를 화자와 청자의 성별차이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26) 思ふまゝいぢめておあげなさい、くせになるから。

여성화자→남성청자(p.293 화자:お秀 청자:住吉潔)

27) お常どん。あちらへ持つていつてあげるんだヨ。エ、気のきかねえ。そんなものゝ掃除はあとでもいゝやネ。

여성화자→여성청자(p.291 화자:お秀 청자:お常)

‘あげる’에서는 남성화자의 사용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예(26)(27)와 같이 여성화자만이 사용되었고, ‘やる’와 마찬가지로 ‘お’를 이용한 ‘おあげなさい’ 표현이 2개 있었다.

『当世書生氣質』에서 대화문에서 화자의 성별에 따라 ‘あげる’를 분류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あげる	남→남	남→여	여→남	여→여
『当世書生氣質』			あげる系 4개 おあげなさる系 2개	あげる系 4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当世書生氣質』에서 보인 ‘あげる’는 여성화자만이 사용했다. 표현 형태에 있어서는 ‘あげる’ 이외에도 ‘お’가 접속된

‘おあげなさる’는 여성화자와 남성청자사이에서 사용되었다.

『当世書生氣質』에서의 ‘さしあげる’의 화자는 앞서 제시한 예(11)와 같이 남성 화자였고, 여성화자의 사용은 보이지 않았다.

## 2) くれる · くださる

다음의 예는 『当世書生氣質』에서의 대화문에 나타난 ‘くれる’동사의 일부를 화자와 청자의 성별차이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28) 幸甚。これさへあれば、まづ今日の義務はすむといふものだ。序に君、もう一つ願旨を聴てくれたまへ。

남성화자→남성청자(p.244 화자:倉瀬連作 청자:守山友芳)

29) オイ姐さん、これを細のにして呉れんか。

남성화자→여성청자(p.241 화자:須河梯三郎 청자:お豊)

30) 金どんおまへはネ、梅どんと一所にあちらへいつてネ、もう直にお婦になるから、用意をして車夫にさういつてお呉れナ。

여성화자→남성청자(p.227 화자:年 청자:金)

31) アタイの衣服もお序でに、すっかりあづかっておくんなさいナ。

여성화자→여성청자(361 화자:十五의 소녀 청자:女中)

‘くれる’는 예(28)(29)와 같이 화자가 남성인 경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남성화자와 남성청자사이에서는 대부분 예(28)와 같이 ‘たまえ’가 접속되어 사용되었다. 그리고 山崎久之가 에도어의 남성어 특색으로서 지적했듯이, 예(29)와 같이 ‘くれんか’이외에도 ‘くれい’등이 사용되었다. 화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예(30)(31)와 같이 ‘くれる’이외에도 ‘お’가 접속된 ‘おくれる’형, ‘おくんなさる’ 형의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当世書生氣質』에서 대화문에서 화자의 성별에 따라 ‘くれる’를 분류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くれる	남→남	남→여	여→남	여→여
『当世書生氣質』	くれる系 51개	くれる系 15개	くれる系 3개 おくれる系 1개	おくれる系 2개 おくんなさる系 1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くれる’은 남성화자의 사용이 여성화자의 사용보다 많았고, 특히 남성화자와 남성청자사이에서의 사용예가 많았다.

다음의 예는 『当世書生氣質』에서의 대화문에 나타난 ‘くださる’동사의 일부를 화자와 청자의 성별차이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 32) 「あれさ、茶屋へ呼んでくださいな。一年に一度や二度、兄さんにお目懸つてからって、お父さんがお叱もなさるまいから、内々で呼んで下さいよ。貴方も御修業中ですから、何でせうから、あの、何は、妾が如何ともしませいから。」

여성화자→남성청자(p.229 화자:田の次 청자:小町田榮爾)

- 33) 厳父親も三芳さんも、御安心なすって下さいまし。

남성화자→남성청자(p.414 화자:守山友芳 청자:守山友定·三芳)

‘くださる’은 남성화자의 사용이 여성화자의 사용보다 많았지만, ‘やる’와 ‘くれる’와 같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예(32)와 같이 여성화자는 ‘な’, ‘よ’를, 예(33)과 같이 남성화자는 ‘お’를 동반하여 사용하였다.

『当世書生氣質』에서 대화문에서 화자의 성별에 따라 ‘くださる’를 분류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くださる	남→남	남→여	여→남	여→여
『当世書生氣質』	お+연용형+ くださる系 1개 くださ系 1개 くださる系 1개	くださる系 1개	くださる系 7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当世書生氣質』에서의 ‘くださる’는 남성화자 보다 여성화자가 더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やる’ ‘あげる’ ‘くれる’와는 달리 남성화자의 경우에 ‘お’가 접속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 4. ‘テ’가 접속되어 사용된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수수동사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주로 구체적인 사물의 이동을 나타내고 있지만, ‘テ’가 접속된 경우에는 ‘勉強してやろう’나 ‘ボールをとってください’와 같이 수수표현 이외에 ‘의지성’이라던가 ‘부탁, 의뢰’의 의미를 나타낸다<sup>12)</sup>고 하는데, 『当世書生氣質』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 1) やる · あげる · さしあげる

다음은 『当世書生氣質』에서 ‘テ’가 접속되어 사용된 ‘やる類’ 동사의 일부이다.

- 34) 無用ちよるなら一寸君の『英文大家文集』を、貸して呉れいといふから、貸してやつちよいた處が、 (p.234)
- 35) そんな事でいひわけをごまかさうと思って。おいらん、な

12) 鈴木重幸(1972)『日本語文法・形態論』むぎ書房 pp.392-397

ぐつておあげなさいヨ (p.293)

- 36) 実に可哀さうな事だナウ。どうせ扇屋へよるから、あそこで何か食べさしてやらう。何か曰くのありさうな身の上だから、其方よく聞正して見るがいゝ。こりや、祭爾々々何を悪戯をするんだ。そこらの樹木を折ると、巡査がやかましくいふぞ。サア / \ 早く來な。早く來な。(p.257)
- 37) 檀那にとくにお話して、其方はわたしの妹にして、これから世話をしてあげよう。(p.263)
- 38) それゆゑ其価値で甘心して、やつてやる積に約束した。(p.345)

‘テ’가 접속된 표현에는 예(34)와 같이 ‘이익, 은혜’를 나타내는 플러스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예(35)과 같이 ‘받는 자’에게 ‘나ぐる’라는 행위가 이동되는 마이너스적인 의미가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수수표현 이외에 화자의 ‘목표 및 희망 달성<sup>13)</sup>’이라는 화자 진술에 관한 표현으로 화자의 적극적인 행위로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다.<sup>14)</sup> 이러한 표현은 예(36)(37) 같이 ‘やらう’ ‘あげよう’와 같이 동사활용을 하거나, 예(38)와 같이 의지를 나타내는 형식 명사 ‘つもり’가 접속하여 화자의 의지를 나타냈다. ‘テ’가 접속된 ‘さしあげる’의 표현은 『当世書生氣質』안에서는 볼 수 없었다.

## 2) くれる · くださる

『当世書生氣質』에서 ‘テ’가 접속되어 사용된 ‘くれる類’ 동사의 일부이다.

- 39) 昔の恩義を忘れないで、斯して折々尋ねてくれるは、実に喜ばしい事であれど、いはゞそなたは今日では、小常の家の女にして、(p.267)

13) 由井紀久子(1996) 「動詞ヤル・クレルにおける意味の抽象化過程」 『日本語教育』 88号

14) 吉田金彦(1971) 『現代語助動詞の史的研究』 明治書院 pp558-581

- 40) 眼鏡をさがしだしてくればえいが。それはさうと、宮賀めは如何しをつたか。(p.365)
- 41) ソラどうだ。『何卒三十円計御送附被下度(ごそうふくだされたく).....』あきれたもんだ。成程脚気でわるいとは聞いて居たが、ピン/ \ はね廻って、遊び歩く事ができる脚気ならしれたもんだ。(p.247)
- 42) ア、もう止さう、あとはつまらない話だから。君察してくれ給へ。いくら笑はれてもしかたがないが、今ではもう / \ 思ひきつて、一昨夜以來大に感ずる所あつて、僕は志を決したから、今までの痴情は君、寛大に見て呉れたまへ。(p.272)
- 43) オイおまい、些と手を貸て、オイ抱いちよつてくれい。オイえいか、おれが飲ませるから。(p.366)
- 44) 実はなア、彼奴は実に失敬極まる奴ぢやから、疾から打擲つて呉れようと思ッちよつたが (p.312)

‘テ’가 접속된 표현에는 예(39)(40)(41)와 같이 행위에 은혜, 이익이라는 플러스적인 측면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지만, 예(42)(43)와 같이 부탁 및 의뢰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부탁 및 의뢰를 나타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예(44)는 ‘やる’와 같은 의미로서 ‘う(よう)’의 표현을 이용한 화자의 의지표현<sup>15)</sup>에 해당되지만 이러한 예는 극히 드물었다.

‘テ’가 접속된 ‘くれる類’의 의미는 대부분 부탁 및 의뢰를 나타내고 있었다. 명령형의 ‘くれる’는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 사용례를 보면 ‘てくれ’ 및 ‘てくれ’에 ‘い’나 ‘な’가 접속된 표현은 26개, ‘てくれたまへ’는 19개, ‘てくれんか’는 4개, ‘てくれろ’는 2개, ‘ておくれ’는 2개, ‘ておくんさい’는 1개가 있었다. ‘くださる’의 경우는 ‘てください’ 및 ‘てください’에 ‘よ’와 ‘な’가 접속된 표현이 5개, ‘てくださいま

15) 日高水穂(1997)「授与動詞の体系変化の地域差 -東日本表現の対照から-」『国語学』

し'가 1개 있었다.

‘テ’가 접속된 표현은 수수표현 이외에 화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의뢰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当世書生氣質』에서 보인 수수동사를 대우표현, 화자의 성별에 따른 특징, ‘テ’가 접속된 표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대우표현에 대해 살펴보면, 현대어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사용하거나 정중어 및 미화어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あげる’가 『当世書生氣質』은 존경의 표현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어에서의 ‘やる’는 ‘받는 자’가 동물, 식물, 사회적 신분이 낮은 경우에 사용되지만, 『当世書生氣質』에서의 ‘やる’는 대등한 관계에서도 다수 사용되었다. ‘くれる’는 대등한 관계 및 ‘주는 자’가 손위의 경우에 사용되었다.

화자의 성별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면, ‘おやりなさい’ ‘おやりよ’ ‘あげる’ ‘おくれる’는 주로 여성이 사용되었고, ‘やる’와 ‘くれる’는 주로 남성들이 사용했다. 특히 남성어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くれる’의 명령형인 ‘くれたまえ’ ‘くれんか’가 있었다.

‘テ’가 접속된 표현을 살펴보면 수수표현 ‘やる’와 ‘あげる’는 화자의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くれる’와 ‘くださる’는 행위에 대한 이익 및 은혜의 이동보다 명령형을 이용하여 부탁 및 의뢰의 표현이 다수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 ❖ 참고 문헌

- 井島正博, 「授受動詞の多層的分析」, 『成蹊大学文学部紀要』, 1997.
- 井島正博, 「魚は三枚におろしてあげます」, 『日本語学』明治書院, 1999.
- 上野田鶴子, 「授受動詞と敬語」, 『日本語教育』35號, 1978.
- 大江三郎, 『日英語の比較研究-主觀性をめぐって-』, 南雲堂, 1975.
- \_\_\_\_\_, 「日英語對照研究と日本語教育・英語教育」, 『日本語学』, 明治書院, 1983.
- 奥津敬一郎, 「日本語の授受動詞構文」-英語・朝鮮語と比較して-, 『人文学報』132 東京都立大学, 1979.
- \_\_\_\_\_, 「授受表現の対照研究」-日・朝・中・英の比較-, 『日本語学』, 明治書院, 1983.
- \_\_\_\_\_, 「やりもらい動詞」, 『国文学解釋と鑑賞』, 至文堂, 1986.
- 金久保紀子, 「待遇表現としての授受表現」, 『日本文化研究』第四号, 1993.
- 小松寿雄, 「『当世書生氣質』の江戸語的特色」, 『論集日本語研究現代語』有精堂, 1974.
- 米沢昌子, 「授給動詞の史的変遷」, 同志社大学 同志社国文学 45, 1997.
- 斎賀秀夫, 「美化語「あげる」の軌跡」, 『大妻国文』28, 『日本語学論説資料35』, 1997.
- 鈴木重幸, 『日本語文法.形体論』, むぎ書房, 1972.
- 辻村敏樹, 『敬語論考』, 明治書院, 1992.
- 寺島浩子, 『講座日本語学9』, 「近世敬語と現代敬語」, 明治書院, 1991.
- 寺村秀夫,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I』, くろしお出版, 1982.
- 豊田豊子, 「補助動詞『やる・くれる・もらう』について」, 『日本語学校論集』第一号, 1974.
- 増井典夫, 「近代語資料における校訂の問題と資料性をめぐって-一坪内逍遙『当世書生氣質』の場合」, 淑徳国文, 1998.
- 松村明, 『近代の国語』, 桜風社, 1977.
- 村田美穂子, 「やる.してやる」と「あげる.してあげる」, 『国文学解釋と鑑賞』, 至文堂, 1994.
- 森田良行, 「荷風・潤一郎・春夫の敬語」, 『明治大正時代の敬語』, 明治書院, 1974.
- 花田康紀, 「現代日本語の授受表現をめぐって」, 東京国際大学論叢人文社会

学部編 第4号, 1998.

日高水穂, 「授与動詞の体系変化の地域差 東日本表現の対照から」, 『国語学』, 1997.

福島那道, 「補助動詞」, 『講座 現代語 6』, 明治書院, 1964.

堀口純子, 「授受表現にかかわる誤りの分析」, 『日本語教育』52, 1984.

山口明穂, 『日本語の歴史』, 東京大学出版者, 1997.

山崎久之, 『国語待遇表現体系の研究』近世編, 武蔵野書院, 1963.

山本和子, 「やる.してやる」と「あげる.してあげる」の使用に見られるゆれの現象」, 『日本語学論文資料 論文資料保存会 28』, 1991.

由井紀久子, 「動詞ヤル・クレルにおける意味の抽象化過程」, 『日本語教育』88号, 1996.

吉川千鶴子, 『日英比較 動詞の文法』, くろしお出版, 1995.

吉川俊雄, 「授受動詞「くれる」「やる」の史的変遷」, 広島大学教育紀要第二部 第44号, 1995.

吉田金彦, 『現代語助動詞の史的研究』, 明治書院, 1971.

『当世書生氣質』坪内逍遙 日本近代文学大系 角川書店.

❖ ABSTRACT

A Study of the Giving and Receiving Verbs  
in *TOUSEISYOUSEIKATAGI*

Jung Soon Yang

Japanese Give and Receive Verbs are divided into "YARU", "MORAU" and "KURERU". These are influenced by the subject, speaker's viewpoint and meaning. Three verbs are used in a different way depending on who is the giver and who is the taker.

I analyze "YARU" and "KURERU" Verbs used in *TOUSEISYOUSEIKATAGI*. It focus on politeness, gender, and meaning when combined with 'TE'.

As an expression of politeness, 'Yaru' is to give to a person of lower social status or an animal or plant. 'Ageru' is to give to an equal or a person of lower social status nowadays. However, 'Ageru' which is treated as elegance of the language remained expression of respect, 'Yaru' is used when the receiver is a person of lower social status and equal social status in *TOUSEISYOUSEIKATAGI*. 'Kureru' is used when the receiver is a person of lower social status and equal social status, 'kudasaru' is used when a person of higher social status gives the speaker something in *TOUSEISYOUSEIKATAGI*.

Women speakers use 'oyarinasai' 'oyariyo' 'ageru' 'okureru' and men speakers use 'yaru' 'kureru'. Speech patterns peculiar to men are 'kuretamae' 'kurenka'.

If the verbs are joined to 「TE」, they obtain abstract meaning as well as a movement of things. They express some modality for action of the preceding verbs. The modality has the following meanings ; good will, goodness, benefits, kindness, hopeness, expectation, disadvantage, injury, ill will and sarcasm. In addition, 'TE YARU' expresses the speaker's strong will, 'TE KURERU' expresses the speaker's request.

---

Key Words

수수동사, 대우표현, 화자의 성별에 따른 표현, 보조동사, 메시지

Give and Receive Verbs, expression of politeness, gendered language, the verbs

combined with 'TE', Meizi

논문접수일: 2010. 2. 24.

심사완료일: 2010. 4. 10.

게재확정일: 2010. 4. 15.